

源仁齋上標日感吟仁川延壽里邵城伯墓閣
 幾百年今翔小齋人謀龜卜悅從皆風烟縱有臨觀
 羨霜露能無感慨懷海拖斜暉當檻暖山舍縹氣八
 簾佳願言八域僉宗甫留待清明飲落偕

원인재(源仁齋) 사랑하던 날에 느낌을 읊다 인천 연수리에 있는 소성백(邵城伯)의 묘각이다.

幾百年今翔小齋 人謀龜卜協從皆
 風烟縱有臨觀美 霜露能無感慨懷
 海拖斜暉當檻暖 山舍縹氣入簾佳
 願言八域僉宗甫 留待清明飲落偕

몇 백년 만에 이제서야 조그마한 재실마련하니,
 사람의 계획과 거북의 점도 모두 협동되었네.
 풍경에는 비록 관광하는 아름다움 있지만,
 서리와 이슬에는 감개하는 회포 없을소냐!
 바다는 석양을 끌어 난간 앞에 따뜻하고,
 산은 아스라한 기운 머금어 발에 들어오네.
 원하건대 온 나라에 계신 여러 일가들은,
 청명날 기다려 낙성연의 술 함께 마십시다.

(1) 서리와...없을소냐..봄에 비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부모와 조상을 생각해서 놀라운 마음이 있고,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는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생각해서 슬픈마음이 있게 된다는 말이 《禮記祭義》에 나오니 이는 제사를 받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한다.

前度人還伏承
 令翰仍審
 令履為相仰慰何量僕偏虛之證甚重將成中風
 不得已再上辭章若得
 台兄為交代則何幸如之京洛荒甚而莫能救之
 空言無補之教令人面發赤呵呵伏惟
 令鑑謹拜上狀
 庚二月廿七日 惇

휘 惇(남파상공 휘 悅의 개전 이름) 유묵

前度人還伏承

令翰仍審

令履為相仰慰何量僕偏虛之證甚重將成中風
不得已再上辭章若得

台兄為交代則何幸如之京洛荒甚而莫能救之

空言無補之教令人面發赤呵呵伏惟

令鑑謹拜上狀

庚二月二十七日

年弟 惇(悅)

저번에 보낸 사람이 돌아올 적에 영감(俞監)의
 서찰을 받아보고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위안되

는 바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이 허약한 증세가 매우 심하여 중풍(中風)이 될까 봐서 부득이 재차 사직
 (辭職)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만약 태형(태문)이 교대해 주신다면 그지없이 다행이겠습니다. 경기(京畿)에 기근(饑
 饉)이 매우 심하게 들어 구제할 수 없으니 「빈말이 노음이 되지 않는다」는 영감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얼
 이 화끈거리게 하였습니다. 우습습니다. 삼가 영감께서는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올립니다.

영(庚)二月二十七日

연제(年弟) : 남파상공 휘 悅의 개전 이름 유묵